

자장전설과 탑의 상징성

The Legend about Jajang() and the Symbolism of the Pagoda

저자 (Authors)	전신재 Jeon, Shinjae
출처 (Source)	아시아강원민속 20 , 2006.9, 265-287(23 pages) The Asia Gangwon Folklore 20 , 2006.9, 265-287(23 pages)
발행처 (Publisher)	아시아강원민속학회 The Society for Asia Gangwon Folkart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30264
APA Style	전신재 (2006). 자장전설과 탑의 상징성. 아시아강원민속, 20, 265-28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05 11: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자장전설과 탐의 상징성

전신재*

차례

- I. 머리말
- II. 성취하는 자장 혹은 웅장하게 솟아오르는 탐
- III. 좌절하는 자장 혹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탐
- IV. 영겁스러운 자장 혹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탐
- V. 맺음말
- VI. 참고문헌

<국문초록>

자장(慈藏)은 신라의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대국통(大國統)으로서 신라의 불교계를 지배하던 총수였다. 당시의 신라는 불교 이데올로기를 취하고 있었기에 불교계의 총수는 곧 정치계의 총수이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장의 삶과 죽음을 전설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다.

자장은 중국에 유학을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고 신라로 돌아온다. 그는

* 한림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삼국통일의 염원을 담아 황룡사 9층탑을 세우는 일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자장은 김춘추와 김유신의 연합 세력에 밀려 정권에서 소외된다. 그리고 자장이 터전을 가꾸어 놓은 삼국통일의 위업은 김춘추 세력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장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고자 하나 문수보살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또한 태백산에 탑을 계속해서 쌓지만 그 탑은 계속해서 무너진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그의 앞에 나타나지만 그는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목숨을 거둔다.

한편 자장의 죽음은 어리석은 중의 실수에 의한 것이다. 자장의 영혼이 잠시 육체에서 이탈했을 때 중은 자장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장의 육체를 화장한다. 자장의 영혼의 주술에 따라 자장의 몸을 화장한 유골은 여러 가지 신통력을 발휘한다. 이에 앞서 자장은 정암사 뒷산에 금탑과 은탑을 세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탑을 알아보지 못한다.

전설에서 자장은 거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인물, 비참하고 허망하게 좌절하는 인물, 영검스럽고 신비에 싸인 인물로 나타난다. 이 세 단계에서 ‘탑’이라는 소재가 각각 절묘하게 이용되고 있다. 큰 인물의 무너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장전설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과 유사하다.

핵심어 : 자장(慈藏), 문수보살(文殊菩薩), 불교 이데올로기, 사찰 창건 전설, 탑, 사마니즘.

I. 머리말

사학자 이기백(李基白)의 판단에 의하면, 신라의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은 자장(慈藏)이다.¹⁾ 자장은 대국통(大國統)으로서 전국의 불교계를 지배하는 총수였다. 엄격한 계율로써 신라 불교계의 기틀을 잡아놓은 이가 자장이다. 그래서 자장에게는 율사(律師) 혹은 법사(法師)라는 호칭이 따라다닌다. 부

1) 이기백, 「자장의 최후」, 『研史隨錄』, 일조각, 1994, 150쪽.

처의 가호 아래 삼국을 통일하려는 염원을 담아 경주 황룡사(皇龍寺)에 9층 탑을 세운 이가 자장이다. 황룡사 9층탑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불교와 왕실의 권위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적 조형물이다. 진신사리를 최초로 봉안한 통도사(通度寺)를 건립한 이가 자장이다. 통도사는 젊은이들이 다투어서 출가하는 상황에서 승려들을 길러내는 중심 사찰이다.

그런데 전설에서 자장은 그 인간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장은 거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해내는 인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참하고 허망하게 좌절하는 인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영검스럽고 신비에 싸인 인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전설에서 자장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어느 전설에서 자장은 조실부 모하고, 또 다른 전설에서 자장은 만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어느 전설에서 자장은 간절한 기도 끝에 문수보살을 만나고, 또 다른 전설에서 자장은 애타는 기도를 올리지만 끝내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한다. 어느 전설에서 자장은 부처의 가호 아래 절과 탑을 세우는 데에 성공하고, 또 다른 전설에서 자장은 절과 탑을 세우는 데에 계속 실패한다. 어느 전설에서 자장은 상서로운 징조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또 다른 전설에서 자장은 비참하고 허망하게 죽는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자장법사가 전설에서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까닭을 찾아보려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전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리의 터득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간의 욕망과 삶의 진실이 서로 어떻게 갈등해 왔고, 또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장의 생몰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연구자에 따라 607년경~676년경, 608년경~677년경, 590년경~658년경, 590년경~654년경, 608년과 614년 사이~650년과 655년 사이 등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대체로 보아 7세기

전반기의 인물이다.

II. 성취하는 자장 혹은 웅장하게 솟아오르는 탑

신라의 진골(眞骨) 출신인 김무림(金武林)은 높은 벼슬자리에 있지만 늦도록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다. 그는 천부관음(千部觀音)을 조상(造像)하여 바치고 자식을 기원한다.

“아들을 접지해 주시면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김무림의 아내는 별이 떨어져 품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다. 그리고 4월 8일에 아들을 낳는다. 그것이 자장(慈藏)이다. 자장은 석가모니와 생일이 같다. 자장의 속명은 김선종(金善宗)이다.

자장은 어려서 부모를 여윈다. 어려서부터 자장은 살생을 좋아한다. 어느 날 자장은 매를 놓아 꿩을 잡는다. 잡힌 꿩은 눈물을 흘린다. 이것을 보고 자장은 출가를 결심한다.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맹수를 피하지 않으며 고골관(枯骨觀)을 닦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얗게 마른 뼈만 남게 되는 경지를 상상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깨끗이 쓸어내는 수양법이다. 그는 산속의 좁은 방 안에 온통 가시덤불을 둘러놓고 알몸으로 그 속에 들어가 앉는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가시에 찢리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붙들어맨 끈을 천장에 매어 놓아 항상 정신이 깨어 있게 한다.

선덕여왕이 자장을 불러 재상자리에 앉히려 한다. 자장은 이를 거절한다. 왕은 자장을 다시 부르며 거역하면 목을 베라고 사자(使者)에게 엄명을 내린다. 왕의 엄명 앞에서도 자장은 단호하다.

“내 차라리 계(戒)를 지키고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선덕여왕은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한다.

자장은 불도를 더 깊이 닦기 위하여 당나라로 유학을 간다. 그는 먼저 오대산(五臺山)으로 간다. 오대산은 산서성(山西省) 태원부(太原府) 오대현(五臺縣)에 있다. 중국의 동북부이다. 청량산(淸涼山)이라고도 한다. 문수보살(文殊菩薩)의 상주처이다.

자장법사는 오대산 태화지(太和池) 가에 있는 문수보살 석상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 지 7일 만에 그는 꿈속에서 한 성인(聖人)을 만난다. 성인은 자장에게 계(髻) 네 구절을 주고 사라진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성인의 음성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이 범어(梵語)이므로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한 중이 자장을 찾아온다. 그 중은 붉은 비단에 금점(金點)을 놓은 가사(袈裟) 한 벌, 바리때 한 개, 부처의 두골(頭骨)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은 자장의 곁으로 와서 묻는다.

“어찌하여 수심에 쌓여 있느냐?”

“꿈속에서 받은 네 구절의 계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뚜렷한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범어를 모릅니다.”

“그 말씀은 자기의 본성은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 중은 가지고 온 가사와 바리때와 부처의 두골을 자장에게 주며 말을 잇는다.

“이것들은 석가(釋迦) 본존(本尊)의 물건들이다. 네가 잘 간직하여라. 너의 나라 동북방 명주(溟州) 땅에 오대산(五臺山)이 있다. 거기에 일만이나 되는 문수보살이 계시다. 그리로 가거라.”

말을 마치자 중은 사라진다.

자장이 중국에서 영험 있는 유적지들을 두루 찾아보고 신라로 돌아 가려 할 때, 태화지(太和池)의 용이 나타나서 재(齋)를 청한다. 자장은 이제 동안 공양을 올린다. 용이 자장에게 말한다.

“전에 너의 꿈에 나타나서 계를 전해 준 성인이 바로 문수보살이시다.”

이것은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三國遺事)』(1281?)의 「오대산의 5만 진신(臺山五萬眞身)」의 앞부분이다. 일연이 산중고전(山中古傳)에 의거하여 기술한 것이다.

자장이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는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황룡사의 장륙 부처(皇龍寺 丈六)」와 「황룡사 구층탑(皇龍寺 九層塔)」에도 나온다. 전자에서는 문수보살이 자장에게 황룡사와 황룡사의 장륙 부처가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후자에서는 선덕여왕은 부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어서 태화지의 지룡(池龍)이 나타나 황룡사의 호법룡(護法龍)은 자기의 맏아들이라는 것,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하고 아홉 나라가 조공을 할 것이라는 것 등을 알려준다.

선덕여왕은 당나라 태종에게 연락하여 자장을 신라로 불러들인다. 자장은 귀국하여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운다. 이어서 자장은 통도사(通度寺)를 창건한다. 통도사 창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들이 있다.

(가) 통도사 터는 원래 큰 못이었다. 못 속에는 용 아홉 마리가 살고 있었다. 자장올사는 이곳에 절을 지으려고 용들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주문(呪文)과 경을 읽었다. 그러나 용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장은 종이에 불 ‘火(화)자 너 자를 써서 못에 던졌다. 그리고 법장(法杖)으로 못을 저었다. 별안간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였다. 용 다섯 마리는 골짜기로 도망을 하였다. 용 다섯 마리가 도망간 곳이 바로 오룡곡(五龍谷)이다. 세 마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해마다 바위에 부딪쳐 죽었다. 그 바위가 바로 용혈암(龍血岩)이다. 용혈암은 통도사 어구에 있는데 지금도 용의 피가 묻은 흔적이 있다. 자장은 나머지 한 마리는 그대로 남아 있게 하였다. 그 용은 지금 절을 수호하고 있다. 통도사의 금강계단(金剛戒壇)옆에 있는 연못의 이름은 구룡지(九龍池)이다. 용 아홉 마리가 살고 있던 못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²⁾

2) 양산 통도사 주지, 1930. 10.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202~203쪽. (필자 요

(나)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와 절을 세우려 하였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자장은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올리고 나서 나무로 오리를 만들어 날려 보낸다. 얼마 후에 오리가 칙꽃을 물고 돌아온다. 때는 겨울. 자장은 눈이 쌓인 산속을 헤매며 칙꽃이 피어 있는 곳을 찾는다. 경상남도(慶尙南道)양산(梁山)의 영취산(靈鷲山)에 이르니 큰 못이 있는데 그 옆에 칙꽃 두 송이가 피어 있다. 원래 세 송이가 피어 있었는데 오리가 한 송이를 물고 와서 두 송이가 남은 것이다. 자장은 이곳이 바로 문수보살이 계시해준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절을 짓는다. 그것이 바로 통도사이다.³⁾

우리가 살펴본 전설들에서 자장은 신성한 태몽으로 태어나며,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은 날에 태어난다. 자장을 신성한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한 설화적 장치들이다. 어려서 부모와 분리되어 고행을 겪는 것은 영웅의 일생에 부합하는 모티프들이고, 평의 눈물 이야기는 고승의 출가 동기로 자주 나타나는 모티프이다.

자장은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난다. 그리고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는다. 오대산 태화지의 용으로부터도 계시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의 역사에서 자장은 중국의 오대산에 간 일이 없다. 자장이 당나라에 유학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대산에 간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장은 유학 기간 동안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長安)과 그 인근에 머물러 있었다. 산서성의 오대산까지 가지는 않았다. 신종원에 의하면, 자장이 중국 오대산을 순례하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곧바로 신라의 오대산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승려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오대산이 신성한 장소로서 문수보살의 상주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⁴⁾

약, 보충)

3) 양산 통도사 주지, 1930. 10.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196~197쪽.(필자 요약)

자장과 동시대인인 도선(道宣, 596-667)의 『속고승전(續高僧傳)』(645)의 「자장전(慈藏傳)」에 의하면 자장이 당나라로 유학을 간 연대는 638년이고, 자장이 오대산에 간 기록이 없다. 그런데 자장보다 600년 이후의 인물인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三國遺事)』(1281?)에 의하면 자장의 입당 연대는 636년이고, 자장은 오대산으로 간다. 『삼국유사』의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慈藏定律]」에 일연은, 자장이 처음에는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으므로 『당승전(唐僧傳)』, 곧 도선의 『속고승전』에는 자장이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는 주석을 붙여놓는다.⁵⁾ 또한 「오대산의 5만 진신[臺山五萬眞身]」에는, 자장이 당나라로 간 연대가 『당승전』에는 정관(貞觀) 12년(638)으로 되어 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삼국본사』를 따라 정관 10년(636)으로 한다는 주석을 붙인다.⁶⁾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자장의 도당 연대는 638년이 맞다.⁷⁾ 일연 스님에게는 우리나라의 오대산을 문수신앙의 본거지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자장 스님이 중국의 오대산을 순례하면서 신비체험을 할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오대산과 중국의 오대산과 『화엄경』속의 오대산(청량산)을 하나로 연결해 놓으려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삼국유사』의 「오대산의 5만 진신」에 의하면 자장은 643년에 귀국하는 즉시로 오대산으로 간다. 이것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자장은 귀국하자마자 경주에 머물렀고 오대산으로까지는 가지 않았다. 자장은 오대산에까지 갈 겨를이 없었다. 자장이 오대산으로 간 것은 그의 딸년이다.

4) 신종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268쪽.

5) 藏公 初歷之 故唐僧傳 不在.

6) 唐僧傳云 十二年 今從三國本史.

7) 신종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284~285쪽.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76, 한국사연구회, 1992, 10쪽.

III. 좌절하는 자장 혹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탑

경상도 양산의 통도사 창건 전설에서, 절을 지을 장소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던 자장은 문수보살의 계시에 따라 한겨울 눈 위에 칙끗 세 송이가 피어 있는 곳을 찾아낸다. 그런데 그곳에 용이 살고 있다. 자장은 주술로써 용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절을 짓는다. 강원도 정선의 정암사 창건 전설도 이와 유사하다. 자장은 문수보살의 계시에 따라 한겨울 눈 위에 칙 세 줄기가 벌어어나간 곳을 찾아낸다. 그런데 그곳에 구렁이가 살고 있다. 자장은 구렁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절을 짓는다.

(가) 자장은 만년에 경주를 떠나 강릉군(江陵郡)에 수다사(水多寺)⁸⁾를 짓고 거기에 머무른다. 어느 날 자장은 꿈을 꾸다. 중국의 오대산에 있을 때 꿈속에서 만났던 그 이상한 중이 꿈에 다시 나타나서 자장에게 말한다.

“내일 너를 대송정(大松汀)⁹⁾에서 보리라.”

자장은 놀라 깨어 밤을 지새우고 이른 아침에 송정으로 간다. 그곳에서 자장은 문수보살을 만난다. 자장은 감격하여 문수보살에게 불교의 요체(要諦)를 묻는다. 문수보살은 그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태백산 갈반지(葛蟻地)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하고는 사라진다.

자장은 태백산으로 간다. 한 곳에 이르니 나무 밑에 큰 구렁이가 서리어 있다. 자장은 시자(侍者)에게 말한다.

“이곳이 바로 갈반지이다.”

8) 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水項里에 水多寺址가 있다. 이곳은 당시에는 江陵郡에 속해 있었다. 신중원, 『水多寺址調査』, 『박물관신문』, 국립중앙박물관, 1983. 12. · 1984. 1.

9) 월정사와 수다사의 중간. 현재 지명 松亭里. 월정사와 수다사의 거리는 약 50리. 수다사의 창건 연대는 651년.

신중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269쪽.

자장은 그곳에 석남원(石南院, 지금의 정암사 淨岩寺)을 짓고 살면서 문수보살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¹⁰⁾

(나) 자장법사가 산에 탐을 세우는데, 세우면 쓰러지고 세우면 쓰러지고 해서 정성을 되려 기도를 했더니 하루밤 사이에 칩이 뺏어서 세 가닥인데 하나는 현재 정암사 자리에 가서 머물고 한 가닥은 적멸궁 자리에 머물고 적멸궁 뒤에 수마노탐 자리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절을 짓고 탐을 세우고 했는데 지금에 가서는 흔히들 갈래사(葛來寺)라고도 합니다.¹¹⁾

(다) 예전에 그 자장 스님께서 침에 그 문수보살님을 만나시고 이곳에 찾아오실 때 동구 밖에 칩넝쿨이 깔렸드래요 갈(葛)자가 칩 갈자거든요. 그래서 오니까 뿌리 근처에 큰 뱀, 막 이무기가 되려는 큰 구렁이들이 모여 살드래요. 그래서 인제 그 자장 스님께서 또 미물들한테도 법문을 하시고 계를 내리시려는 잘 들었대요. 그래서 그 구렁이한테는 그 부처님 계를 하례하셔 가지고 요 아래 마을에 내려가 살도록 하시고 이곳에다가는 그 석남원을 지셨대요.

석남원이라는 암자를 지셨는데 그 인제 뒤쪽으로 사리탐을 모시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라. 그래서 불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까, 겨울인데도 칩넝쿨 세 줄기가 자라서 지금 수마노탐 자리에 멈추드래요. 겨울인데도 꽃을 피우고, 칩줄기가.¹²⁾

문수보살이 절 지을 자리를 암시해 준다는 점, 용 혹은 구렁이가 있던 자리에 용 혹은 구렁이를 물리치고 절을 짓는다는 점, 한겨울에 눈 위에서 꽃을 피운 칩이 절 지을 장소를 암시해 준다는 점 등에서 자장법사가 통도사

10) 일연, 『慈藏定律』(부분), 『삼국유사』

11) 유환성(남·61), 1976. 9. 25,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임석재, 『한국구전설화』4, 평민사, 1989, 111쪽.

12) 정암사 덕진 스님(남·47), 2004. 7. 30, 정성군 고한읍 정암사, 『강원의 설화』II, 강원도, 1077~1078쪽.

를 창건할 때의 이야기와 정암사를 창건할 때의 이야기는 공통된다. 그런데 정암사 창건 전설은 탑을 쌓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쓰러지는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도사 창건 전설과 구별된다. 자장은 경상도 양산에 통도사를 지을 때(646)에는 저항을 받지 않았지만, 강원도 정선에 정암사를 지을 때(651년 이후)에는 저항을 받았음을 암시받을 수 있다.

정암사의 부처가 계속해서 없어진다는 전설도 있다. 절에 부처를 모셔 놓으면 없어지고, 다시 모셔 놓으면 또 없어지고 해서 부처를 찾아보면 부처는 부처소(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름이 부처소이다. 부처소는 갈래(葛來)마을 앞에 있다.¹³⁾ 그런데 사실은 진골사리를 모셔놓은 적멸보궁에는 원래 부처를 모셔놓지 않는다.

계속해서 쓰러지는 탑보다도, 계속해서 없어지는 부처보다도 자장을 크게 절망시킨 것은 문수보살이다. 『삼국유사』의 「오대산의 5만 진신」에 의하면 자장은 당나라에서 귀국하는 대로 오대산으로 온다. 오대산에서 자장은 문수보살을 만나고자 기도를 올린다. 그러나 사흘 동안 날이 캄캄할 뿐 문수보살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대산의 월정사와 5류 성중[臺山月精寺五類聖衆]」에서는 이례가 되어도 문수보살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장이 계울을 정하다」에서 문수보살은 수다사(水多寺)에 있는 자장의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자장을 대송정(大松汀)으로, 대송정에서 다시 갈반지(葛蟠地)로 인도한다. 자장은 갈반지에 정암사를 짓고 문수보살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 뒤의 사건은 다음과 같다.

13) 엄기복(남 · 73), 「갈래사 자장법사와 부처소 내력」, 1983. 5. 25.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784~787쪽.
전선중(남 · 60), 전택원(남 · 69), 「갈래절(정암사)에 부처가 없는 유래」, 1995,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박성종 · 황루시, 『한강상류(정선읍 · 신동읍) 지역의 기층문화』, 정선군, 1996, 135쪽.

하루는 늙은 거사(居士)가 자장을 찾아온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최으로 만든 삼태기를 들고 있는데 그 삼태기 안에는 죽은 강아지가
들어 있다. 거사는 자장의 제자에게 큰 소리로 묻는다.

“자장 있느냐?”

자장의 제자는 당황한다. 그리고 낯선 늙은이의 당돌한 태도가 꽤
씹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우리 스승을 모셔온 이래로 감히 우리 스승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본 일이 없다. 너는 대관절 누구냐?”

“어허, 무슨 까탈이 그리 많으냐? 너의 선생에게 내가 왔다고 이르
거라.”

제자가 들어가 자장에게 고하니 자장은 사뭇 불쾌한 어조로 말한다.

“미친 사람인가 보다. 쫓아 보내라.”

제자가 밖으로 나가 거사를 꾸짖는다. 그러자 거사는,

“돌아가리рода. 돌아가리рода.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
를 보겠느냐?”

라고 통명스럽게 말하며 삼태기를 거꾸로 들고 던진다. 그 순간 죽은
강아지가 떨어지며 금빛 사자로 변한다. 늙은 거사는 그 사자 위에
올라앉는다. 사자와 거사는 몸에서 빛을 내며 서서히 하늘로 올라간다.

나중이야 이를 알고, 자장은 위의를 갖추고 빛을 찾아 남쪽 언덕으
로 급히 올라간다. 그러나 이미 아득해져서 따라갈 수가 없다.

자장은 언덕에서 몸을 던져 숨을 거둔다.

대국통(大國統)으로서 신라의 불교계를 장악하고 있던 자장법사, 불교와
왕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를 지배하고 있던 자장법사의
최후는 이처럼 처참하고 허망하다. 중국의 오대산에서 자장은 문수보살을
만났었다. 경상도의 원녕사(元寧寺)에서도 자장은 문수보살을 만났었다.¹⁴⁾
그러나 강원도의 오대산 월정사에서도, 태백산 정암사에서도 자장은 문수보

14) 復住元寧寺 乃見文殊云. 『삼국유사』, 「오대산의 5만진신」. 원녕사는 자장이 태어난 집
에 지은 절이다.

살을 만나지 못하거나,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정암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가 입적한 연대도 밝혀져 있지 않다. 우리는 그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를 모르고 있다. 그의 죽음은 거국적 관심사가 아닌 닥인가. 그만큼 그는 나라에서 소외되어 있었던가.

자장이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네 구의 게(偈)의 주제는 “본성은 본래 없다”는 뜻이었다.¹⁵⁾ 그러니 ‘자기’라는 것도 본래는 없는 것이다. 허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우월감, 즉 ‘이상(我相)’은 본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장은 한창 젊은 유학 시절에 문수보살로부터 이러한 진리의 게를 받고서도 일생 동안 ‘이상’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자장으로부터 떠난 것이다.

자장은 김춘추(金春秋)와 김유신(金庾信)의 연합 세력과 대립관계에 있었다. 황룡사 9층탑 건립을 선덕여왕에게 건의한 것은 자장이었지만 그 공사를 감독한 것은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수(金龍樹)였다(645). 상대등 비담(毗曇), 염종(廉宗) 등이 반란을 일으켜 선덕여왕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 반란을 진압한 것은 김유신이었다(647). 이 와중에서 선덕여왕이 승하하고 진덕여왕이 즉위한다(647). 신라는 당나라의 의관을 착용하고(649),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함으로써(650) 당나라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그런데 이러한 복식 개혁과 연호 사용의 공적을 『삼국사기』는 김춘추에게 돌리고, 『삼국유사』는 자장에게로 돌린다. 거기에서부터 진덕여왕이 짧은 재위 기간 끝에 승하하고, 김춘추가 왕위에 오른다(654. 태종무열왕). 또한 불교계에서는 자장법사가 주도하던 귀족적이고 보수적인 불교의 뒤를 이어 원효대사(元曉大師)

15) 문수보살이 범어로 준 게 : 阿囉婆佐曩 達嚩多佉野 曩伽舍伽曩 達嚩盧舍那
 중이 한문으로 번역해 준 게 : 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如是解法性 卽見盧舍那 (모든 법을 남김없이 알고자 하는가 / 본디 바탕이란 있지 않은 것 / 이러한 법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 곧바로 노사나불을 보리라)
 『삼국유사』, 「오대산의 5만 진신」

로 대표되는 서민 불교가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장은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났을 것이다.¹⁶⁾ 자장이 오대산의 수다사와 태백산의 정암사로 옮겨온 것을 고구려와 말갈로부터 신라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¹⁷⁾ 전설로 보아서는 자장이 중앙 세력에 밀려서 오대산과 태백산으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IV. 영검스러운 자장 혹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탑

1888년 5월 8일, 당시 정선군수 오횡묵(吳宏默, 1834- ?)은 정암사를 방문한다. 이 날의 일기에서 그는 정암사를 속인으로 하여금 흥진을 씻어버리게 하는 성지로 묘사한다. 나무들이 울창하여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 깊은 골짜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한 줄기의 긴 시내가 있어 외나무다리 열한 개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곳, 절의 마당에 이르면 풍경소리가 더없이 맑게 들리는 곳, 그에게 정암사는 이러한 곳이었다.

절 마당에서 산을 올려다보며 그는 주지 스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 절의 주봉은 천의봉(天倚峰). 그 남쪽은 은대봉(銀臺峰)이고 북쪽은 금대봉(金臺峰)이며 서쪽은 법상봉(法像峰)이다. 동북에는 상함박(上函朴), 동남에는 중함박(中函朴), 서남에는 하함박(下函朴), 서북에는 고토일(古土日)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하늘을 떠받들기라도 할 듯이 우뚝 솟은 봉우리들로 그야말로 태백(太白)의 진맥(眞脈)이다. 그 사이로는 큰 내가 가로놓여 있는데 남과 북에서 와서 법당 앞에서 합금(合衾)하고 있다. 옛날에는 이 산

16)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76, 한국사연구회, 1992, 37~43쪽.

17) 김복순, 「신라 오대산 사적의 형성」, 『강원불교사연구』, 소화, 1996, 16쪽.

속에 64곳의 암자가 있었다. 중합박 아래에 있는 조전암(祖殿庵)과 은대봉 사이에 석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장법사를 화장한 뼈가 보관되어 있다.

그는 적멸궁(寂滅宮)으로 들어가 예배하면서 불상이 없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감실(龕室) 왼쪽에 있는 퀘에서 자장법사가 읽던 수습권의 책들을 뒤적여보고, 자장법사가 입던 가사(袈裟) 한 벌도 본다. 그 가사는 형체만 남아 있었다.¹⁸⁾

이에 앞서 1887년 7월 9일. 오횡묵 군수는 『태백산정암사사적(太白山淨巖寺事蹟)』 필사본을 입수한다. 이 책에서, 그리고 정암사 현장 방문시 스님들에게서, 오횡묵은 자장법사에 관한 전설 몇 가지를 읽고 듣는다.

정암사 뒷산에는 탑이 세 개 있다. 금탑(金塔), 은탑(銀塔), 마류탑(瑪瑠塔). 그런데 금탑과 은탑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던 사람이 보았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보았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옛날에 자장법사의 어머니는 못에 선명하게 비친 탑 세 개를 보았다. 자장은 절 입구에 못을 파고 못 위에 삼지암(三池菴)을 지어 놓는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온다. 자장법사의 어머니가 못을 들여다본다. 탑 세 개가 선명히 비쳐 보인다.

정암사 적멸궁 뜰 남쪽에 고목(枯木) 한 그루가 수직으로 우뚝 서 있다. 높이는 5~6길 쯤 되고 마른 가지 일곱 개가 붙어 있다. 이것은 자장법사의 지팡이이다. 자장법사가 재생하는 날에 이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절 아래 시내 가운데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다. 형상이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고 하여 거북바위[龜巖]이라고 한다. 이 바위는 매양 풍우 때에나 절에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영험이 나타났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8) 자장율사(慈藏律師) 금란가사(錦欄袈裟). 강원도 지방민속자료 제1호였는데 1974년 8월 22일 도난 멸실되어 1981년 5월 1일에 해제되었다.

등에 정을 박고 깨뜨리려고 한 뒤로는 다시는 영험이 나타나지 않는다.

조전암 인근의 바위굴에 석함이 있고 그 안에 자장법사를 화장한 뼈가 있는데 그 뼈를 만지는 사람은 영험이 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다투어서 그 뼈를 만지고 간다.

이에 앞서 1887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정선 백성 대표 6명과 정암사, 통도사 등의 승려 11명은 정암사에서 주상[고종]과 충궁[명성황후]과 세자[순종의 세자 시질]를 위하여 치성을 드린다. 그들은 매일 새벽에 목욕하고 공불(供佛)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매일 대상을 바꾸어 공양을 올리고 축원하는데 그 대상은 산신각, 칠성각, 제석보살, 조왕보살, 신장(神將)보살, 독성조사(篤聖祖師), 자장법사의 순서로 바뀐다.¹⁹⁾ 자장법사가 산신, 칠성신 등과 같은 위계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오형묵이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전설은 네 가지이다. 「금탑 · 은탑」, 「자장법사의 지팡이」, 「거북바위」, 그리고 「자장법사의 유골」. 이들의 공통점은 신이성(神異性)이다. 「금탑 · 은탑」은 자장과 그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킨다. 금탑과 은탑이 보이는 세계. 그것은 자장과 그의 어머니를 제외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세계이다. 「자장법사의 지팡이」는 자장법사의 부활을 갈망하고 있다. 「거북바위」에서 우리는 불교와 무속의 습합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자장법사의 유골」에서 우리는 불교가 무속화되어버린 경지를 읽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전설을 주목할 만하다. 『삼국유사』의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慈藏定律]」는 자장의 죽음으로 끝나는바 이 이야기는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 설은 그 자리에서 수행자로서 성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설이 있고,

19) 오형묵, 『정선총쇄록』, 정선문화원 / 경인문화사, 2002, 182쪽.

또 한 가지 설은 그 자장 스님께서도 미묘한, 신체를 이탈할 수 있는 그런神通력을 갖고 계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에 두고 혼은 빠져서 급히 문수보살님을 쫓아가시는데 힘이 달려 못 쫓아가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가지고 허공에 머무시면서 시자보고

“내가 나온 내 몸뚱이를 석 달간만 잘 보관을 해 두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해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쓸 일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근데 석 달이 되기 전에 그 남루한 스님이 오셔서 가지고,

“해괴한 일이다. 돌아가신 스님을 빨리 다비를 모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모시고 사느냐?”

그래 다짜고짜 다비를 모시게 됐는데, 그 후에 인제 구십일이 돼서, 석 달이 돼서 자장 스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가지고 시자를 크게 나무라시면서,

“어찌 그대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내 몸뚱이를 태웠느냐? 내가 다시 그 몸을 쓸 일과 인연이 있거늘, 내가 태웠구나.”

그래 걱정하시면서, 그래 이미 태워 놓으면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그 유골 뼈를, 지금 여기서 한 이 킬로 쯤 뽕족 봉우리 석혈이 하나 있습니다. 굴이 하나 있는데,

“열화봉 석혈에다가 잘 모셔두면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정토(淨土)에 닿을 수 있는 이인이 되게 하리라.”

그런 예언적 말씀을 남기시고 사라지셨대요.

근데 오륙십 년 전에 탄광이 막 여기 시작될 무렵에 남아 있는 분들은 그걸 보셨대네요. 석함이 있었고, 흰 가루가 있었다는데, 집안에 우환이 들고 어려움이나 그런 고생한 사람들도, 오랜 질병에 고생한 사람들도 그걸 찍어 먹고 바르면 잘 나왔대네. 그래 가지고 인근 사람들이 다 찍어먹고 발라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죠.²⁰⁾

20) 정암사 덕진 스님(남 · 47), 2004. 7. 30, 정성균 고태읍 정암사. 『강원의 설화』Ⅱ, 강원도, 2005, 1079쪽.

정암사 스님의 구연이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정선군 태백산 정암사 사적』에 실려 있다.²¹⁾ 영혼이 육체에서 임시로 이탈한 사이에 육체를 화장하여 영혼은 정주처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육체를 화장한 유골은 영혼의 계시에 따라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자장법사와 낮선 승려가 대립 관계로 나타난다. 자장법사가 상좌에게 제시한 금기(禁忌)를 낮선 승려가 깨뜨렸기 때문에 자장법사의 육체와 영혼은 다시 결합하지 못한다. 낮선 승려는 자장법사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장법사가 아상(我相)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수보살에게 버림을 받아 죽었다는 『삼국유사』의 이야기와는 크게 다르다.

혼이 육체에서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가거나(ecstasy), 초자연적인 존재의 혼을 육체로 받아들이는 것(possesion)은 샤머니즘의 기본 원리이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존재와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예언, 신탁, 점복, 치료 행위 등을 행하는 사람을 샤만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에서 자장은 샤만의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육체는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기에, 옷이 낡으면 바꾸어 입듯이 육체가 낡으면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불교의 윤회설(輪廻說)과는 다른 사유방식이다. 불교에서는 화장이 자연스럽지만 무속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이야기에서 자장이 상좌에게 자기의 육체를 태우지 말라는 금기를 주는 것은 불교적인 사유방식은 아니다.

『강원도 정선군 태백산 정암사 사적』에는 이 이야기 다음에 「자장법사의 점석(占石)」이야기가 이어진다. 이것은 자장법사의 유골을 안치해 놓은 바위굴 아래 5백 보 거리 길가에 있는 돌이다. 자장법사가 생전에 아끼던 돌이

21) 이 이야기는 다음 문헌들에도 실려 있다.

최승순 외, 『태백의 설화』하, 강원일보사, 1974, 28~33쪽.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784~787쪽.

『정선군지』, 정선군청, 2004, 76~77쪽.

다. 자장법사의 유해를 만지면 효험이 있듯이 이 돌을 만지면 효험이 있다. 병자는 병이 낫고, 고뇌가 있는 사람은 고뇌를 씻어버릴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자장법사가 산신이나 칠성신과 동격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정선 백성들이 고종과 명성황후와 세자를 위해서 치성을 드릴 때 백성들은 자장법사에게 빌었다.

지금까지 살핀 여러 유형의 전설들과 제의에서 우리는 무속이 자장법사를 신격으로 수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전설에서 자장은 거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해내는 인물로 나타난다. 자장은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며, 그 문수보살의 계시에 따라 신라에 황룡사 9층탑을 세우는 일, 통도사를 세우는 일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황룡사 9층탑은 삼국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는 상징적 조형물이며, 통도사는 신라를 지탱해 나갈 인재들을 길러내는 요람이다.

전설에서 자장은 비참하고 허망하게 좌절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자장이 정선에 정암사를 세울 때 탑을 쌓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무너지며, 부처를 모셔 놓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없어진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다리던 문수보살이 나타나지만 자장은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장은 자기가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하였음을 자책하며 목숨을 거둔다.

전설에서 자장은 영검스럽고 신비에 싸인 인물로 나타난다. 자장은 정암사 뒷산에 금탑과 은탑을 쌓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탑을 보지 못한다. 자장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육체에서 분리시켰다가 다시 결합시키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자장이 영혼 여행을 떠났을 때, 한 중은 어리석

게도 자장의 육체를 불사른다. 자장의 몸을 불사른 유골은 여러 가지 영검을 발휘한다. 자장이 생전에 아끼던 돌도 영검을 발휘한다.

자장은 정치적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삼국통일의 염원을 담아 황룡사 9층탑을 쌓는다. 그러나 자장은 대립 관계에 있던 김춘추 계열에 밀려나서 정계에서 소외되고, 삼국통일은 김춘추 세력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장은 신라의 변두리 태백산으로 밀려나서 그곳에 다시 탑을 쌓지만 그 탑은 계속 무너진다. 자장은 금탑과 은탑을 쌓는 데에 성공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탑을 알아보지 못한다. 자장전설은 ‘탑’이라는 소재를 절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자장전설은 큰 인물의 무너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리어왕」과 유사하다. 자장전설과 「리어왕」의 비교 연구를 다음 과제로 남겨놓는다.

VI. 참고 문헌

- 김복순, 「신라 오대산 事蹟의 형성」, 김복순 외『강원불교사연구』, 소화, 1996.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론」, 『한국사연구』76, 한국사연구회, 1992.
박용수, 『오대산』, 대원사, 1996.
박성종 · 황루시, 『한강상류(정선읍 · 신동읍) 지역의 기층문화』, 정선군, 1996.
신종원, 「水多寺址調査」, 『박물관신문』, 국립중앙박물관, 1983. 12. · 1984. 1.
신종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오형묵, 『정선총쇄록』, 정선문화원 / 경인문화사, 2002.
이기백, 「자장의 최후」, 『研史隨錄』, 일조각, 1994.

일 연, 『삼국유사』

임석재, 『한국구전설화』4, 평민사, 1989.

장정룡, 『정선의 구비문학』(설화편), 정선군, 2005.

정암사, 『정암사』, 우리출판사, 2004.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최승순 외, 『태백의 설화』하, 강원일보사, 1974.

최웅 외, 『강원의 설화』II, 강원도, 2005.

『정선군지』, 정선군청, 1978.

『정선군지』, 정선군청, 2004.

<Abstract>

The Legend about Jajang(慈藏) and the
Symbolism of the Pagoda

Jeon, Shinjae

Jajang(慈藏)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s in the Buddhism of *Shilla*(新羅). As a *Daeguktong*(大國統), he had not only ruled the religious realm, but also he was the important person in the politic. This essays aims to observe the life and death of *Jajang* through the legend about him.

Jajang met *Munsu-Bosal*(文殊菩薩) in the time of studying in China and returned to *Shilla*. In *Shilla*, he performed many religious business successfully, for example, building 9 story pagoda in *Hwang-Ryong* Temple(皇龍寺) prayi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nations. After that, although *Jajang* was pushed out from the center of power by *Kim Chunchoo*(金春秋) and *Kim Yooshin*(金庾信), *Kim Chunchoo* achieved the unification owing to the foundation which had been prepared by *Jajang*. *Jajang* longed for meeting *Munsu-Bosal* in O-Dae Mountain(五臺山), but *Munsu-Bosal* didn't show up. He kept building pagoda in *Tae-Baek* Mountain(太白山), but the pagoda collapsed. Even when *Munsu-Bosal* was in front of him, he couldn't recognize *Munsu-Bosal*. After all, he died with regret which he couldn't recognize *Munsu-Bosal*. In addition, his death was caused by the fault of foolish monk. During his astral projection,

this foolish monk burned his body, because this monk judged his body as a dead. But even after his death, his incantation showed a lot of supernatural power. And before his death, he builded gold and silver pagodas in the back mountain of *Jeong-Am* Temple(淨巖寺), but the people didn't recognize the pagoda because of their foolishness.

In these legends, *Jajang* was described as a person who performed huge project, as a person who was baffled pitifully, and as a person who was supernatural and spritual. In these phases, the pagodas were used as subject matters consistently. In the point that it deals with the downfall of the great person, the series of legends about *Jajang* are similar with *King Lear* of Shakespeare.

* **Key words** : Jajang(慈藏), Munsu-Bosal(文殊菩薩), Ideology of Buddhism, Legend of foundation Buddhist temple, Pagoda, Shamanism.